

War Room I .

기도! 준비된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는 열쇠 (왕과 제사장의 기도)

1. 옛 사람과 새 사람 / 옛 부대와 새 부대, 그리고 타이밍

[사무엘상 16:1, 13] 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13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의 고민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으로 세우셨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반역한 종 사울 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잘 알 수 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번 사울 왕에게 말씀하신다. 사울 왕이 알아듣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것이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ㄱ) 사울 - 옛 자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옛 자아의 특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아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아이다.

ㄴ) 다윗 -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신부처럼 구하는 사람이며, 예배자였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다스린 훌륭한 왕이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는 언제나 동일하다. 작동하지 않는 옛 사람, 옛 부대를 제거하시고 새 사람, 새 부대를 준비하신다 (육과 혼적인 부대가 아닌 영적인 부대, 영의 사람). 새 사람과 새 부대로 일어나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그런데 언제가 그 타이밍인가? 여기에 비밀이 있다.

2. 기름 뿔병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셨다. 문제는 다윗의 등장이다. 새 부대, 새 사람인 다윗이 어떻게 언제 등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새 일을 갈망하는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는가? 타이밍에 대한 문제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 타이밍이 선명하다.

(1) 기름 뿔병을 준비하라.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말씀하신다.(삼상 16:1). 사무엘이 준비할 것은 딱 하나이다. 다윗에게 부을 왕의 기름이다. 무슨 말인가? 다윗을 찾았다고 해도 기름 뿔병에 기름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부은 그 순간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

다윗이 왕의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다윗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 공인의 삶으로의 첫 발걸음이다.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식적인 인정’이다. 권위에 대한 인정이다. 그것이 다윗 개인의 어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 권위는 세상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다. 다윗이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든 권위가 아닌 위로부터 부여된 권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기름이 있는가?

우리에게도 적용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부르신다. 나를 넘어 공적인 영역, 즉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나와 교회를 부르신다. 교회는 나 이상의 공동체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통치할 정부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질서이다. 이 질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에 모두가 정렬하는 것이다. 다윗의 춤 아웃, 이스라엘 왕으로의 초대, 개인의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시간에 정렬된 다윗을 움직이게 한 것이 무엇인가? ‘기름’이다. 기름이 있는가? 기름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때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름’이다. ‘기름’이 있는가?

3. 기도 - 친밀함으로부터 오는 기름

기름 뿔병은 있는데 그 속에 기름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기름 뿔병에 기름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신다. 충분해야 한다. 오늘 점검하라. 충분한 기름이 뿔병에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기도는 기름과 같다. 기름이 있어야 불이 붙을 수 있다.

(1) 오로지 기도 - 기름을 모으는 준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전에, 그들이 모여 정한 시간에 오로지 기도하에 힘썼다.

[사도행전 1:14]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4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along with the women and Mary the mother of Jesus, and with his brothers.

* 오로지 기도 (constantly in prayer)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오로지 기도가 필요하다. 이 과정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하기 전의 조건이다. 기름이 모아져야 영의 불이 붙을 수 있다. 기도는 탱크에 기름이 채워져야 쓰여진다. 한국교회가, 조이풀 교회가, 성전이, 나는 이미 탱크로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그 탱크에 기름을 채워야 한다. 이미 초대교회의 구조로 사도행전 교회는 준비되어 있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한다. 새 부대가 이미 준비되었다. 새 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기도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2) 합당한 기름

사무엘이 부었던 기름은 왕에게 부을 기름이다. 다른 기름이 아니다. 지금은 합당한 기름을 부어야 한다. 합당한 메시지를 해야 한다. 기름부음이 없는 종교적 가르침으로는 다윗을 깨울 수 없다.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한다. 내 뜻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한다. 계속해서 주시는 감동이 더 넓은 기도 (중보기도)를 경험하라는 것이다. '워룸'의 핵심은 바로 중보기도이다. 기도할 제목이 많다.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경영을 위한 거룩한 일에 정렬되어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마지막 왕으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한다. 그곳이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다. (늦은 비의 기도 - 추수 - 재림을 위한 기도)

4. 왕과 제사장의 기도

(1) 제사장인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Kingdom'은 king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1:5-6] 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 왕과 제사장

왕의 역할 - 다스리고 통치한다. / 제사장의 역할 -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왕이며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은 '나라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 왕의 통치가 시작된다.

[베드로전서 2: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의 역할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즉, 우리가 거룩한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를 합당하게 받으시고 왕의 통치를 시작하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제사장이 드릴 희생의 제사인가?

[히브리서 5: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대답이 위의 말씀에 있다. 예수님이 그에 대한 분이 되신다.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을 얻으셨는가? 그분이 먼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희생의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제사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되어 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를 한 마디로 말하면 '인내와 기도'이다. 인내와 기도가 희생의 제사이다.

기도를 통해 응답을 얻으려면, 제사장의 기능인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한다. '인내와 기도'를 알아야 한다. '인내와 기도'가 제사장의 사역이다. 기도하에 우리의 태도가 바로 제사장의 삶과 사역을 통해 제시된다. 다윗은 왕의 기름을 받은 후부터 '인내의 기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준 기도가 바로 그것이다. 가장 친밀한 기름과 강력한 기름이 모아지는 기도이다. 그 기도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이제 진짜 기도의 권능을 찾자. 왕과 제사장의 기도로 나아가자.